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 17:7-14절은 7절에서 “너는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천사는 놀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그 자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 여자와 짐승

본문 7-14절은 여자와 그녀가 탄 짐승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짐승에 대한 소개입니다(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는 것은 이전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의 패러디로 볼 수 있습니다(계 1: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짐승에 대한 표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게 될 것입니다. 차이점은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짐승은 ‘현재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하게 될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계 20:7-9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계 20:7-9,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사탄과 짐승이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는 자유롭고 더 강했지만 창 3:1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머리가 밟힌 이후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무저갱에 갇힌 상태와 같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짐승이 무엇을 뜻하는지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절충주의적 해석을 하는 오스본은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짐승이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은 역사가 끝날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Grant R. Osborne). 결국은 그 짐승도 멸망으로 들어갈 운명입니다. 이는 사탄이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상태이지만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동역자들과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절충주의적 해석). 사탄과 짐승의 영원한 멸망은 운명인 것입니다(계 20:10,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 일곱 머리와 일곱 산, 일곱 왕, 여덟째 왕

본문 9-10절은 음녀와 짐승의 밀착 관계를 보여줍니다(9-10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는 8절 마지막의 말씀대로 장차 나올 짐승의 모습입니다.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면서 일곱 왕을 가리킵니다. ‘산’이라는 것은 큰 존재라는 뜻이고 ‘왕’은 산과 마찬가지로 큰 자를 뜻합니다. ‘여자가 그 위에 앉았다’는 것은 여인이 이들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이들도 여인을 앞세워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다섯 왕은 죽었고 왕 하나는 현재 있고 다른 한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소위 상징주의자들은 로마 제국과 황제들로 해석합니다. 문자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미래의 한 시점에 일어나게 될 특정

상황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느 해석이 맞든지 간에 공통점은 이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모두가 한시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짐승이 이들 머리(지도자)를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해 가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은 여덟째 왕을 짐승이라고 말씀합니다(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전까지는 다른 일곱 머리들을 앞세워서 일했지만 이제 짐승 자신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 왕을 상징하는 열 뿔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앞선 일곱 왕과는 달리 순서적이지 않고 동시에 나타나며 짐승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권세를 발휘하게 됩니다(12-13절,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짐승과 모든 왕들은 결국 모두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운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악의 공동체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비록 성경은 ‘지금은 없다’고 말씀하지만 이들의 힘과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대항하거나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은 오늘 말씀대로 그 날이 가까울 수록 더욱 조직적이고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악한 영들의 발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힘과 능력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되고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9절도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 날이 가까울 수록 짐승의 조직과 같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한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히 10:23-25,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만약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두움과 악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계속 잠들어 있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한국 교회, 신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교우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케냐 최인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